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5월 4일 · 제 355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앤트워프(Antwerp)항, 새로운 에너지 허브 계획 발표
2. 차이나코스코쉬핑 선박, 세계 최초로 확장된 파나마 운하 갑문통과 예정
3. 아마존: 독일 공항 매입 추진
4. DHL, 2016년판 물류동향 보고서 발간

| 물류시장동향 |

1. Amazon,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Pick-Up 서비스 개시 예정
2. Etihad Cargo, 중동지역 화물서비스 네트워크 강화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앤티워프(Antwerp)항, 새로운 에너지 허브 계획 발표

- 앤티워프항 항만당국과 Engie사는 앤티워프항의 선석 526번과 528번에 대체 에너지(alternative energy hub) 허브 개발을 위한 30년 기간의 양허 계약을 체결함
 - Engie사는 전기, 천연가스,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전문 운영사임
 - Engie사는 에너지 전환(energy transition)에 있어 선도자와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임
- 앤티워프항의 대체 에너지 허브는 내륙운송(inland navigation & road transportation)을 위한 LNG(liquefied natural gas) 벙커와 충전소로 구성될 것임
- 또한 해당 부지는 CNG(compressed natural gas) 가스 충전소와 전기 자동차를 위한 고속 충전 설비를 갖추 예정임
- 앤티워프항과 ENGIE사는 대체 에너지 허브의 개발로 운송 부문에서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에 있어 주요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임
- 이번에 체결된 계약서는 2016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대체 에너지 허브 1단계는 2017년 말에 운영이 개시될 예정임
- 앤티워프항은 지속 가능한 그린포트의 선두 주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, 그동안 노력한 결과 친환경 선박의 입항 척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
- 라인 다뉴브 운하(Rhine - Main - Danube)의 LNG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앤티워프항은 유럽 전역의 32개 파트너들과 함께 내륙운송(inland navigation)에 LN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 - 내륙운송 부분의 LNG 연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내륙에 위치한 유럽 항만까지 내수로선(inland vessel)으로 하여금 LNG를 운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
- 앤티워프항에 LNG 벙커링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2017년부터 LNG가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임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6.4.28.

이연경 전문연구원
051-797-4682, ekleee@kmi.re.kr



차이나코스코쉬핑 선박, 세계 최초로 확장된 파나마운하 갑문통과 예정

- 최근 추첨을 통해 오는 6월 개통되는 확장된 파나마 운하 갑문을 가장 먼저 통과할 선박으로 중국 차이나코스코쉬핑 선박이 결정됨
 - ‘세계 최초’ 기록을 갖게 될 통과 선박 추첨식은 개통식인 6월 27일을 약 두 달 앞둔 4월 29일 파나마운하청에서 공증기관의 입회 하에 진행됨
 - 이 날 추첨 행사에는 노르웨이-스웨덴 공동 선사인 왈레니우스 빌헬름센(WWWL)사와 중국 국적 차이나코스코사가 확장된 파나마 운하의 세계 최초 통과 기록을 두고 경합을 벌임
 - WWWL측은 8,000CEU(car equivalent units)급 자동차 전용선 *Thalantia*호를 내세웠으며, 차이나코스코쉬핑측은 이에 맞서 최대 9,400TEU 적재 능력의 컨테이너선 *Andronikos*호¹⁾를 앞세워 추첨에 참가했음
- 파나마항만당국(ACP)은 확장 공사 후 넓어진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포스트-파나마스급 선박에 대해 통과 스케줄 예약을 받고 있음
 - 파나마운하 당국측은 확장된 새 파나마 운하의 통과 선박 기준을 함께 발표했으며, 이에 따르면 선박의 빔 넓이는 최대 49m이며, 길이는 최대 366m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음
 - 확장된 파나마 운하는 1만2,000TEU급 선박이 통과할 수 있으며, 최대 1만4,000 TEU급 선박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번 첫 출항을 앞둔 차이나코스코쉬핑은 예약 요금 및 기타 해상 서비스를 포함해 갑문통과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²⁾을 부담함
 -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, 4월 29일 현재까지 확장된 파나마운하 통과예약 선박 수는 비-파나마스급을 기준으로 100척 이상임
 - *American Journal of Transportation*(AJOT)에 따르면, 확장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뉴파나마스급 선박의 통과예약은 4월 18일부터 받기 시작함
 - 한편 확장된 갑문이 아닌 파나마운하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운하 재개통 후 첫 통과 상업운항의 영예는 NYK 라인 소속의 LPG선 *Linden Pride*호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도됨
- 업계에서는 파나마운하 확장 이후 1만TEU급 이상의 대형선 통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파나마 운하에 배선됐던 4,000~6,000TEU급 선박들은 동남아 항로로 전환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선복 과잉의 우려가 나오고 있음

자료 : www.lloydlist.com / www.ajot.com, 2016.4.29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1) Andronikos호는 전장 299.98m, 빔 높이 8.25m에 이름.

2) 확장된 파나마 운하 통과에 따른 총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음.



아마존: 독일 공항 매입 추진

- 아마존(Amazon)은 자사 화물수송기 운영을 위해 독일 서부지역에 위치한 Frankfurt-Hahn 공항 매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음
 - 독일 언론에 따르면, 공항 매입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, 아마존과 Hahn 공항 간의 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

자료 : AP Photo

- 매입 추진 중인 독일 공항은 아마존 유럽지역 서비스에 있어 허브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
 - 독일 공항 매입으로 아마존은 FedEx와 UPS와 같이 완전한 물류 서비스(full-fledged logistics)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 - 볼름버그 통신이 입수한 아마존 내부문건에 따르면 앞으로 아마존 판매자들은 DHL, UPS 또는 FedEx가 아닌 아마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함
 - 내부문건과 관련하여 아마존 CFO는 기존 물류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 계획은 오보인 것으로 해명함
- 또한 아마존은 물류부문 투자로 400억 달러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
 - 아마존이 계획한 "Bigger in-house logistics service" 를 구축하고, 향후 물류부문에 있어 4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
 - 아마존은 "교통 운송 사업자"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자사 연간보고서에 언급함
 - 지난 달 아마존은 미국 내 당일 및 익일 배송서비스를 위해 보잉767 화물기 20대를 임대하였고, 아마존 중국을 해상포워딩업체로 등록하여 중국-미국 간 해운서비스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
 - 아마존은 수천대의 자사 트럭을 보유하고, 운영 창고를 증설할 계획이며,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비해 유럽 지역 내 아마존 화물기 서비스로 운영 할 계획임

자료 : www.businessinsider.com, 2016.4.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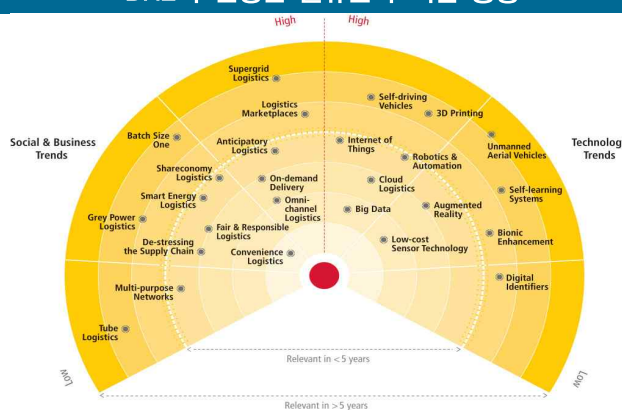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

DHL, 2016년판 물류동향 보고서 발간

- DHL은 올해로 3번째 발간되는 물류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5-10년 안에 물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26개의 핵심 트렌드를 선정했음
 - 올해 새로 발간된 보고서(Logistics Trend Radar 2016)에서는 새로운 물류 동향은 물론 2013년 이후 기존 DHL의 동향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물류분야의 주류(mainstream)를 이루고 있는 동향들의 진화 과정도 다루었음
 - DHL의 혁신&동향 분석부문 부사장인 Markus Kückelhaus씨는 “동향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”면서 “시대를 선도하는 동향은 매우 긴 시간동안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, 일부는 매우 짧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”고 말했음
 - DHL의 동향 보고서가 자사는 물론 고객들에게도 사전에 물류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- 이 보고서는 물류산업을 에너지와 무역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동향부터 물류부문의 스타트업(startup)과 같은 미시적 동향까지 분석했음
 - ‘인공지능(AI)’과 ‘개인화(personalization)’는 2015년 보고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, 머신러닝³⁾을 통한 자기 학습과 같은 지능적인 공급사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 -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된 공급사슬은 제조업 부문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창고 및 라스트 마일 배송은 높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빠르게 정착 될 것으로 예상함

DHL이 선정한 물류분야 핵심 동향



자료 : aircargoworld.com

자료 : www.logisticsmgmt.com, 2016.4.25.

이홍원 연구원

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

3) 데이터의 생성 양·주기·형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.



물류시장동향

Amazon,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Pick-Up 서비스 개시 예정

- 아마존사는 미국 롱비치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과 Amazon@TheBeach를 설립, 대학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Pick-U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- Amazon@TheBeach는 캘리포니아 대학(CSULB: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)에 약 2,500㎡의 규모의 창고를 건설, 올해 가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
 - 대학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내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, 이용 고객들의 화물수령 및 반품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제공함
 - Amazon@TheBeach 설립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, Amazon에서 오후 12시전 물건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당일배송이 되는 등 운송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
- Amazon사는 이번 Amazon@TheBeach를 시작으로 올해 추가로 5곳의 대학⁴⁾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
자료 : supplychain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6.4.29.

김은미 연구원

051-797-4778, useal004@kmi.re.kr

Etihad Cargo, 중동지역 화물서비스 네트워크 강화

- 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의 화물분야 담당 Etihad Cargo사는 쿠웨이트에 화물서비스를 추가하고 오만의 Muscat 지역에 매주 두 번의 화물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중동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함
 - 발표에 의하면 쿠웨이트에 추가된 화물서비스는 A330편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항공화물서비스 지원이 추가되며 Muscat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개시되는 것임
- Etihad Cargo의 부회장 David Kerr씨는 쿠웨이트와 Muscat지역으로의 화물서비스가 강화 되면서 중동지역으로 일주일에 총 열한번의 항공화물서비스가 제공됨
 - Etihad Cargo는 다양한 국제 연결망과 비행기 기종을 이용해 화물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아부 다비 국제공항이 글로벌 항공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함
 - 의약품, 귀중품 및 특급배송이 필요한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'Sky Stables', 'TempCheck', 'Safeguard' 및 'FastTrack' 등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게됨
- Etihad Cargo는 작년 한 해 동안 남미, 아프리카, 아시아 등 많은 지역으로 화물서비스를 확장 했으며 올해 중동 지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임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6.4.27.

김민경 연구원

051-797-4777, mkkim421@kmi.re.kr

4) 펜실베이니아 대학(University of Pennsylvania),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(University of California, Davis), 텍사스 오스틴 대학(University of Texas at Austin), 조지아 공대(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), 애크론 대학(University of Akron).